

서울 북촌(北村), 이대로 좋은가

Bukchon in Seoul, Is it all right as is?

중앙간선도로망을 구축하려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도 해보자고 제안해 본다.
유서깊은 정독도서관 건물은 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축대를 없애어 접근이 용이한 북촌의 중앙공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에게 북촌은 과연 어떤 곳인가? 서울에게 북촌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북촌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어떻게 변화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리 민족이 서울에 수도를 정한 지 600년하고도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복원된 궁과 성 외에는 고도(古都)로서의 시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채 100년도 안된 지나간 세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북촌이라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동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인사동은 바닥만 정비해 골목길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길바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자 건물이 새로워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오늘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다음은 북촌 차례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삼청동길, 가회동길, 북촌길 등 북촌의 길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업화 되어버렸다. 섬처럼 몇 덩어리 남아있는 한옥 지붕들이 안쓰럽게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맹수를 피해 머리만 쳐박고 있는 꿩같이 측은하다.

북촌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한옥 매입 등을 추진하던 서울시 당국의 관심은 점점 청계천으로 그리고 용산으로 흘러가 버려 희미해져만 가고 관광객을 위한 정책만 점점 힘을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북촌 구경을 올까를 생각해 볼 때 그건 북촌이 살아있는 역사이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살아있는 동네가 되려면 북촌은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남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나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것이 아닌가.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동네로 유지되어야 북촌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서울시가 중앙간선도로를 북촌 지하로 관통시킬 계획이 있다고 한다. 또한 북촌의 큰 몽치땅 중 기무사, 미국대사관 관사터 등으로 북촌의 상업화를 부채질 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게다가 북촌 중앙에 제일 크게 자리잡고 있는 정독도서관을 축대로 둘러 쌓여 북촌 내 소통을 가로막고 있어 마치 큰 유조선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듯 하다.

중앙간선도로망을 구축하려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도 해보자고 제안해 본다. 유서깊은 정독도서관 건물은 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축대를 없애어 접근이 용이한 북촌의 중앙공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또 지하에는 쓰레기 집하장과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장터를 세우고 풍물패를 불러들이기 보다는 마을에 깃들어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경 온 사람들이 한옥의 아늑함과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으면 한다.



윤상구 / Yun, Sang-koo
북촌문화포럼 대표

-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운영위원장
- 2016 국제로타리 서울국제대회 HOC위원장
- 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정부예산 투입 결과물이 전시 행정 쪽으로 흐르는 병폐를 막기 위해 간판정비나, 골목길 정비 등을 제일 구석진 곳, 제일 작은 골목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며 주민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 조율해 서서히 시행하길 바란다. 북촌이 잘 가꾸어지고 보존될 때, 한옥에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호기심이나 잠재된 향수에 이끌려 북촌에 찾아오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